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0, Vol. 15, No. 1, 25-44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 현 진† **이 주 영** **문 경 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주) 마음사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 부산 및 경남 지역 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6세 자녀를 둔 어머니 282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과 양육 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질 중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고, 어머니의 성격 특성 중 자율성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기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 변량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유아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인내력 기질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를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자극 추구 기질과 어머니의 자극 추구 기질 및 위험 회피 기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반면, 어머니의 성격 특성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기질의 강도에 상관없이 어머니는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를 보였다. 셋째, 어머니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기질만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인내력 기질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무관심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 양육 태도

† 교신저자 : 박현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azra@maumsarang.or.kr

www.kci.go.kr

산업화된 현대 사회는 가정과 사회 구조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교육 기회의 확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미혼 여성은 물론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도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 기간의 감소,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교육비나 생활비의 증가, 노후 대책 마련 등의 경제적 필요성과 자아 실현 욕구에 의해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김미희, 탁진국, 한태영, 한영석, 유태용, 2007). 기혼 여성들에게는 가사 노동 및 육아와 함께 경제 활동이라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사회 내에서 기혼 여성들이 기혼 남성들과 동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지만, 자녀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어머니에게 일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육 과정에서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머니들이 비난받거나 어머니 스스로도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요인, 어머니 혹은 양육자 요인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머니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과도한 책임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와 어머니 요인의 설명력을 각각 규명함으로써, 어머니들이 보다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04년 Child Development 저널을 통해 정서 조절에 대한 개념적 토의와 더불어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의 통합, 발표가 있었다. 그 결과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개인 내적 요인 중 유아의 기질, 개인 외적 요인 중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대표 변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Eisenberg, Champion, & Ma, 2004, 박진아와 정문자, 2007에서 재인용). 특히 1950년대 초반부터 Thomas와 Chess(1957)가 기질에 대한 종단 연구를 시작으로 기질과 양육에 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Thomas 등이 주장한 조화적합성 개념은 이후 유아와 유아를 둘러싼 심리적 환경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기초가 되었다. 유아가 속한 환경의 속성, 기회, 기대, 요구가 유아의 능력, 동기, 행동 유형 등의 특성과 적절히 조화될 때 바람직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조화를 이룰 때 왜곡된 발달과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그들의 주장 이후, 환경 특성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기체의 속성으로는 자녀의 기질이 주목받아 왔다. 국내에서도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 양육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 어머니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 기질과 양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전수연, 2002; 천희영, 1992, 1993; 한세영과 박성연, 1996).

먼저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인선과 김희연(2005)은 유아의 자극 추구 성향과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부모 중심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 성향과 인내력 성향이 높을수록 부모는 유아 중심의 양육태도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아의 자극 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으며, 4개의 기질 척도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클수록 아동중심의 양육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오현숙, 2006). Bates (1980)는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행동, 예를 들어 영아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거나 통제를 많이 하는 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밝힌

www.kci.go.kr

바 있다. 전수연(2002)은 Buss와 Plomin(1984)의 EAS를 기초로 쉬운 기질, 더딘 기질, 까다로운 기질 이상 3가지 기질로 분류하여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쉬운 기질 및 더딘 기질의 아동에게는 부모가 비슷한 수준의 온정적 양육 태도와 지배적 양육 태도를 나타냈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에게는 부모가 적대적 양육 태도를 많이 보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기질과 양육에 대해 상반된 결과도 있었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순한 기질이 부모의 온정 및 반응성과 관련이 있었으며(Bates, 1987), Caron과 Miller (1981)는 더 많이 울고 보채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양육에 보다 더 신경을 쓰고 반응적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개인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면 상황의 부정적인 면에 더 주목하고 (Watson & Clark, 1984), 부정적 경향이 많은 어머니는 영아를 더 까다롭다고 지각한다 (Levit, Weber, & Clark, 1986)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기질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양육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지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양육에서 자녀의 기질만이 아니라 어머니 요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uss와 Plomin(1984)은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 어머니와의 기질 조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부모와 아동의 사회성이 모두 높거나 활동성이 모두 높은 경우 부모와 아동은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모두 정서성이 낮은 경우 즉 부모와 아동이 화를 잘 내지 않고 쉽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을 때, 조화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부모-자녀 관계를 이룬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기질 조화성과 양육 형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최영희(1993)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세영과 박성연(1996)이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각각의 영역별로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기질, 어머니 기질,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과 어머니의 동일 기질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성과 상관없이 아동의 정서성만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건 빈도와 지각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순영, 이경옥, 김영희(2005)의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정서성만이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질 부조화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여아는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정서성,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에 대한 기질 부조화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자녀와 어머니의 기질 조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와 어머니의 기질 동일성이 어머니의 만족감 및 긍정적 양육에 미치는 효과도 일관되지 않았다. 한편 전수연(2002)은 아동의 행동 발달 면에서 봤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방적 효과를 지니기 보다는 아동의 기질에 따른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즉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진 아이에게 바람직한 양육 방식이 모두 같은 발달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런 맥락상의 효과 차이는 부모 양육 유형이 동일해도 인종이나 문화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들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 1994)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기질에 따라

www.kci.go.kr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과의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기질 동일성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기질 부조화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행동 차이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자원, 아동 특성 및 사회적 지원 중 아동 특성인 기질이 양육 행동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다는 보고가 있었다(Belsky & Gamble, 1984). Baker와 Heller (1996)는 영유아의 기질 자체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이를 지각하는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임희수와 박성연(2002)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충동적인 정서 조절 방식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일수록 감정 발산적이고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정서 조절 방식을 가짐을 보고하였다. 반면, 보상적이고 표현적 또는 내면 지향적인 조절 방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문제 중심적인 대처 및 지지 추구적인 정서 조절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긍정적인 대안 활동을 하는 정서 조절 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함이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 자녀나 어머니의 기질은 다양한 환경 자극 유형에 대한 자동적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적응 체계에서의 개인차로써,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 조절 능력이나 이와 관련된 성격 특성은 자녀의 기질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보고하는 어머니 성격 특성은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자율성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와 어머니의 기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의 기질 및 성격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기질 척도가 연구용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Cloninger의 척도는 표준화된 규준을 갖추고 있어 기질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와 유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Cloninger(1987)는 행동 활성화 체계, 행동 억제 체계, 행동 유지 체계로 기질을 분류한 후, 대표하는 기질 이름을 각각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위험 회피(harm avoidance), 보상의존성(reward dependence)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세 번째 기질 차원인 보상 의존성은 추후 행동 유지에 기여하는 보상 유형(친밀감 혹은 성취)에 따라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라는 개별 차원으로 분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어머니의 기질을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각각 4차원을 이용하여 탐색하려 한다.

한편 Cloninger의 성격 척도에서 성격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 개념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환경 자극에 대한 자동적 정서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기질 차원들과는 구별된다. 특히 이런 자기 개념은 경험의 의

www.kci.go.kr

미와 중요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서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같은 기질 유형을 지닌 사람들이라도 성격 발달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 자율성(Self-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 및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 척도로 구성된 성격 차원은, 자율성과 연대감의 총점으로 성격적 성숙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의 성격 척도로 어머니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여,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함께 양육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유아는 성격 형성 및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유아의 성격 차원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특히 성격 차원 중 자율성은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동적 정서 반응을 억제하고 자녀에 대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시사하는 바, 자율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나 자신의 기질 특성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양육 태도 및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격 차원 중 연대감은 어머니의 통제 능력보다는 수용적인 영역을 측정하고 있는 바, 양육 태도 중 온정/애정적인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격 척도 중 자기초월 척도는 자율성과 연대감과는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척도가 나타내는 의미를 진단할 수 없고 자율성이나 연대감과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따라 발달상의 성숙 또는 비성숙을 진단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조화성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연구 대상

서울과 부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0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무성의한 응답과 임의 자료를 1차로 제외한 후, 설문에 포함된 각 척도에서 결측치가 전체 문항의 10% 이상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의 적용 연령이 만 3세에서 6세임을 감안하여, 만 2세인 남아 2명과 만 7세인 여아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82명(남아 154명, 여아 12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남아의 경우 5.04세(SD=.94)였으며, 여아의 경우 5.12세(SD=.87)였다. 설문을 실시한 주양육자인 어머니 282명의 평균 연령은 34.54세(SD=3.28)였다.

측정도구

기질 및 성격 검사 - 유아용(JTCI/3-6: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

Goth 등(2003a)이 미국의 유아용 JTCI를 기

www.kci.go.kr

초로 독일 표본을 대상으로 문항의 문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든 독일형 JTCI/3-6을 오현숙과 민병배(2007)가 표준화한 검사다. 기질 및 성격 검사–유아용은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자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검사 구성은 기질 차원과 성격 차원으로 나뉘는데, 기질 차원에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포함되며, 성격 차원에는 자율성, 연대감 및 자기-초월이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 각 기질의 높고 낮은 집단 분할은 각 기질 차원의 표준화 규준 상위, 하위 각 30%에 해당하는 백분위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TCI의 해석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각 차원의 상위 30%, 하위 30%, 및 중간 점수 3분 분할점을 상, 하, 중간점으로 사용하여 각 특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질 및 성격 검사 - 성인용(TCI-RS: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Goth 등(2003b)이 TCI-R을 단축형으로 추가 개발한 것으로,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현재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표준화 작업을 거쳐 출판되었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검사 구성은 기질 차원과 성격 차원으로 나뉘는데, 기질 차원에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포함되며, 성격 차원에는 자율성, 연대감 및 자기-초월이 있다. 기질 차원 중 자극 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인 보상 단서에 끌리고 활성화되는 행동 경향성의 개인차를, 위험 회피는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이 예상될 때 이를 피하기 위한 행동 억제나 위축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는 정서 및 행동의 개인차를 측정하며, 인내력은 미래의 보상이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만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 시간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또한 성격 차원 중 자율성은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반영하며,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자기 개념으로부터 행동에 대한 통제력, 책임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타나낸다. 연대감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사회 및 인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인류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지각하는 면과 관련이 있으며, 타인과의 동일시, 타인에 대한 수용, 자비, 양심 등이 연대감의 기초가 된다. 자기초월은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기질의 높고 낮은 집단 분할은 각 기질 차원의 표준화 규준 상위, 하위 각 30%에 해당하는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TCI의 해석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각 차원의 상위 30%, 하위 30%, 및 중간 점수 3분 분할점을 상, 하, 중간점으로 사용하여 각 특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양육 태도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 (PARQ)

Rohner(1991)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용–거부 척도로 만든 4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Rohner (1991)에 의하면 이 척도는 수용과 거부의 두

www.kci.go.kr

영역으로 나뉘는데, 수용 영역은 온정/애정 차원으로, 거부 영역은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분류하기 어려운 거부 등 총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전수연(2002)이 재요인 분석하여 2개 요인으로 분석 후 요인당 측정 문항이 많아 각 요인을 다시 2개씩 총 4요인으로 나누었으며, 각각 요인을 공격성과 적대감, 무시, 애정과 온정, 관심성으로 재명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hner(1991)의 구인에 따라 4요인으로 요인 분석을 하였으며, 요인값 .30 이하의 문항 및 4번째 요인에는 한 문항만이 해당되어 이를 삭제한 결과 1) 온정/애정 요인(총 24문항) 2) 적대/거부 요인(총 21문항) 3) 무관심 요인(총 3문항) 최종 3요인을 얻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를 3요인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5.0 for window를 사용하여 ANOVA, post-hoc test하였으며, PARQ의 요인 분석은 CEFA ver. 3.1을 사용하였다.

결 과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과 양육 태도간의 상관 관계

유아의 기질 4차원(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어머니의 기질 4차원, 어머니의 성격 특성 2차원(자율성, 연대감), 어머니의 양육 태도(온정/애정, 적대/거부. 무관심)와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기질간의 상관분석 결과, 유아의 자극 추구와 어머니의 자극 추구는 정적 상관이 있고(r=.33, p<.01), 유아의 위험 회피와 어머니의 위험 회피 역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31, p<.01), 유아의 인내력과 어머니의 인내력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32, p<.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간의 상관에서는 유아의 위험 회피 기질과 어머니의 자율성이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34, p<.01), 유아의 인내력은 어머니의 자율성 및 연대감과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28, p<.01, r=.28, p<.01). 또한 유아의 자극 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r=.31, p<.01), 유아의 인내력 기질은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32, p<.01).

한편 어머니의 기질과 성격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위험회피 기질과 자율성 및 연대감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r=-.68, p<.01, r=-.38, p<.01). 어머니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연대감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39, p<.01), 어머니의 인내력 기질은 자율성 및 연대감과 각각 정적 상관이 있었다(r=.42, p<.01, r=.42, p<.01). 또한 어머니의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기질은 공격/적대 양육과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32, p<.01, r=.33, p<.01), 어머니의 인내력 기질은 온정/애정적 양육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35, p<.01). 어머니가 자극 추구 기질과 위험 회피 기질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양육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가 인내력 기질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양육을 보였다.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 태도간의 상관 결과, 어머니의 자율성은 온정/애정적 양육과 정적 상관(r=.38, p<.01), 적대/거부적 양

www.kci.go.kr

표 1. 전체 상관표

		1	2	3	4	5	6	7
아이 기질	1. 자극 추구	1.00						
	2. 위험 회피	0.18**	1.00					
	3. 사회적 민감성	0.16**	0.10	1.00				
	4. 인내력	-0.36**	-0.21**	0.13*	1.00			
어머니 기질	5. 자극 추구	0.33**	0.23**	0.22**	-0.12*	1.00		
	6. 위험 회피	0.06	0.31**	-0.05	-0.20**	-0.06	1.00	
	7. 사회적 민감성	-0.01	-0.02	0.16**	0.12*	0.19**	-0.31**	1.00
	8. 인내력	0.06	-0.11	0.25**	0.32**	0.23**	-0.41**	0.18**
어머니 성격	9. 자율성	-0.11	-0.34**	0.05	0.28**	-0.21**	-0.68**	0.12*
	10. 연대감	-0.18**	-0.18**	0.15*	0.28**	-0.14*	-0.38**	0.39**
양육 태도	11. 온정/애정	-0.16**	-0.18**	0.19**	0.32**	0.00	-0.30**	0.14*
	12. 적대/거부	0.31**	0.22**	0.04	-0.28**	0.32**	0.33**	-0.06
	13. 무관심	0.12*	0.16**	-0.02	-0.13*	0.18**	0.27**	-0.08

		8	9	10	11	12	13
아이 기질	1. 자극 추구						
	2. 위험 회피						
	3. 사회적 민감성						
	4. 인내력						
어머니 기질	5. 자극 추구						
	6. 위험 회피						
	7. 사회적 민감성						
	8. 인내력	1.00					
어머니 성격	9. 자율성	0.42**	1.00				
	10. 연대감	0.40**	0.36**	1.00			
양육 태도	11. 온정/애정	0.35**	0.38**	0.28**	1.00		
	12. 적대/거부	-0.19**	-0.39**	-0.28**	-0.33**	1.00	
	13. 무관심	-0.20**	-0.30**	-0.15*	-0.26**	0.45**	1.00

* $p<.05$ ** $p<.01$ *** $p<.001$

www.kci.go.kr

육 및 무관심 양육과는 각각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39, p<.01, r=-.30, p<.01). 따라서 어머니가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및 어머니의 기질 조화성과 양육 태도간의 관계

4차원의 각 기질별로 유아 및 어머니의 기질에 대한 규준 점수를 상, 하위 30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집단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은 유아와 어머니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같은 기질 두 집단, 유아는 높고 어머니는 낮거나 유아는 낮고 어머니는 높은 다른 기질 두 집단, 총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양육 태도별로 집단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원인 자극 추구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에 대한 집단 차이가 유의하였다(F(3, 143)=3.99, p<.01). 사후 검증 결과, 유아와 어머니 모두 낮은 자극 추구 기질을 가진 집단이 유아의 자극 추구 성향은 높고 어머니의 자극 추구 성향은 낮은 집단에 비해 온정/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한 집단 차이 역시 유의하였다(F(3, 143)=7.30, p<.001). 사후 검증 결과, 유아와 어머니 모두 낮은 자극 추구 기질을 가진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역시 4집단 차이가 유의하였다(F(3, 143)=3.23, p<.05). 사후 검증 결과, 유아와 어머니 모두 낮은 자극 추구 기질을 가진 집단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은 집단에 비해 무관심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두 번째 기질 차원인 위험 회피를 살펴보면, 온정/애정적인 양육 태도에 대한 집단 차이가 유의하였다(F(3, 112)=7.66, p<.001). 사후 검증 결과, 유아와 어머니 모두 위험 회피 기질이 낮은 집단과 유아의 위험 회피 기질은 높고 어머니는 낮은 집단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집단 차이가 유의하였다(F(3, 112)=11.04, p<.001). 사후 검증 결과, 어머니 위험 회피 기질은 높고 유아의 위험 회피 기질은 높거나 낮은 집단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위험 회피 기질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집단 차이가 유의하였다(F(3, 112)=5.57, p<.01).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위험 회피 기질이 낮은 집단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적었다.

세 번째 기질 차원인 사회적 민감성의 경우, 집단이 세 집단으로만 나뉘었다. 각 양육 태도에 대한 세 집단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온정/애정적인 양육 태도에 대해서만 집단 차이가 있었다(F(2, 88)=7.55, p<.01). 사후 검증 결과, 유아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온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기질 차원인 인내력을 살펴보면, 온정/애정적인 양육 태도에 대한 집단 차이가 유의하였다(F(3, 111)=14.49, p<.001). 사후 검증 결과, 유아와 어머니 모두 인내력이 높은 집단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인내력이 낮은 집

www.kci.go.kr

표 2.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에 따른 집단 차이 검증

	같은 기질(자극 추구)		다른 기질(자극 추구)			
	유NS↓/모NS↓	유NS↑/모NS↑	유NS↓/모NS↑	유NS↑/모NS↓	*F*	사후검증
	mean(n=51)	mean(n=29)	mean(n=42)	mean(n=25)		
온정/애정	86.67 (a)	84.79 (b)	85.86 (c)	80.68 (d)	3.99**	a>d
적대/거부	39.41 (a)	49.48 (b)	45.17 (c)	46.48 (d)	7.30***	b, c, d>a
무관심	5.57 (a)	7.00 (b)	6.05 (c)	6.12 (d)	3.90*	b>a
	같은 기질(위험 회피)		다른 기질(위험 회피)			
	유HA↓/모HA↓	유HA↑/모HA↑	유HA↓/모HA↑	유HA↑/모HA↓	*F*	사후검증
	mean(n=37)	mean(n=40)	mean(n=22)	mean(n=17)		
온정/애정	88.97 (a)	81.93 (b)	84.27 (c)	87.82 (d)	7.66***	a>b, d>b
적대/거부	37.59 (a)	48.60 (b)	46.45 (c)	44.65 (d)	11.04***	b>a, c>a
무관심	4.97 (a)	6.33 (b)	6.36 (c)	6.65 (d)	5.57**	b=c=d>a
	같은 기질(사회적 민감성)		다른 기질(사회적 민감성)			
	유RD↓/모RD↓	유RD↑/모RD↑	유RD↓/모RD↑	유RD↑/모RD↓	*F*	사후검증
	mean(n=28)	mean(n=37)	mean(n=26)	집단 없음		
온정/애정	79.11 (a)	86.76 (b)	83.96 (c)	-	7.55**	b>a
적대/거부	46.79 (a)	42.51 (b)	45.00 (c)	-	1.24	
무관심	6.64 (a)	5.84 (b)	6.19 (c)	-	1.23	
	같은 기질(인내력)		다른 기질(인내력)			
	유P↓/모P↓	유P↑/모P↑	유P↓/모P↑	유P↑/모P↓	*F*	사후검증
	mean(n=59)	mean(n=25)	mean(n=8)	mean(n=23)		
온정/애정	80.08 (a)	90.84 (b)	87.25 (c)	87.09 (d)	14.49***	b>a
적대/거부	48.95 (a)	41.00 (b)	44.50 (c)	42.52 (d)	5.13**	a>b
무관심	6.51 (a)	4.96 (b)	6.63 (c)	6.30 (d)	4.89**	a>b

* $p<.05$ ** $p<.01$ *** $p<.001$

NS↓: 낮은 자극 추구 집단, NS↑: 높은 자극 추구 집단

HA↓: 낮은 위험 회피 집단, HA↑: 높은 위험 회피 집단

RD↓: 낮은 사회적 민감성 집단, RD↑: 높은 사회적 민감성 집단

P↓: 낮은 인내력 집단, P↑: 높은 인내력 집단

유: 유아, 모: 어머니

www.kci.go.kr

단에 비해 온정/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집단 차이가 유의하였고($F(3, 111)=5.13$, $p<.01$),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서도 집단 차이가 있었다($F(3, 111)=4.89$, $p<.01$). 사후 검증 결과, 유아와 어머니 모두 인내력이 높은 집단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인내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와 무관심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낮았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이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단계에 자녀의 기질 4차원,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을 넣었다. 2단계에는 어머니의 기질 4차원,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을 넣었다. 3단계에는 어머니의 성격 특성인 자율성과 연대감을 넣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은 자녀의 기질 중 사회적 민감성($t=2.15$, $p<.05$) 및 인내력($t=2.15$, $p<.05$) 차원이었다.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중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t=3.18$, $p<.01$)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에 대한 설명 변량은 자녀의 기질이 15.0%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기질이 갖는 설명 변량은 7.1%였으며, 어머니의 성격 특성은 3.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이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의 기질 4차원, 어머니의 기질 4차원, 어머

표 3.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 어머니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표

종속변인		예측변인	R^2	$\triangle R^2$	β	t
온정/애정 양육	step1	자극 추구	.150	.150	-.118	-1.94
	유아 기질	위험 회피			-.049	-.84
		사회적 민감성			.126	2.24*
		인내력			.133	2.15*
	step2	자극 추구	.221	.071	.074	1.13
	어머니 기질	위험 회피			.018	.23
		사회적 민감성			.011	.17
		인내력			.128	1.86
	step3	자율성	.252	.031	.256	3.18**
	어머니 성격	연대감			.069	1.02

* $p<.05$ ** $p<.01$ *** $p<.001$

www.kci.go.kr

표 4.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 어머니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표

종속변인		예측변인	R^2	$\triangle R^2$	β	t
적대/거부 양육	step1	자극 추구	.151	.151	.174	2.96**
	유아 기질	위험 회피			-.002	-.03
		사회적 민감성			.016	.29
		인내력			-.079	-1.32
	step2	자극 추구	.285	.134	.252	3.93***
	어머니 기질	위험 회피			.179	2.31*
		사회적 민감성			.001	.02
		인내력			-.091	-1.36
	step3	자율성	.293	.007	-.122	-1.22
	어머니 성격	연대감			-.041	-.63

* p<.05 ** p<.01 *** p<.001

니의 성격 특성 2차원을 각각 1, 2, 3단계로 순서에 따라 넣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은 자녀의 기질 중에서는 자극 추구 기질이었고(t=2.96, p<.01), 어머니의 기질 차원 중에서는 자극 추구(t=3.93, p<.001) 및 위험 회피(t=2.31,

표 5. 어머니의 무관심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 어머니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표

종속변인		예측변인	R^2	$\triangle R^2$	β	t
무관심 양육	step1	자극 추구	.040	.040	.064	.98
	유아 기질	위험 회피			.021	.33
		사회적 민감성			-.024	-.39
		인내력			.021	.32
	step2	자극 추구	.132	.093	.209	2.96**
	어머니 기질	위험 회피			.146	1.71
		사회적 민감성			-.065	-1.00
		인내력			-.166	-2.26*
	step3	자율성	.140	.008	-.096	-1.11
	어머니 성격	연대감			.080	1.11

* p<.05 ** p<.01 *** p<.001

www.kci.go.kr

p<.05) 기질이었다. 어머니의 성격 차원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해 설명 변량은 자녀의 기질이 15.1%였고, 어머니의 기질이 13.4%를, 어머니의 성격 특성은 0.7%였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이 어머니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의 기질 4차원, 어머니의 기질 4차원, 어머니의 성격 특성 2차원을 각각 1, 2, 3단계로 순서에 따라 넣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해 자녀의 기질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기질 중 자극 추구(t=2.96, p<.01)와 인내력(t=-2.26, p<.05) 차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 특성은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해 설명 변량은 어머니의 기질이 9.3%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성격 특성은 0.8%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자녀의 기질은 4.0%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문제 1에서 제기했던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조화성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와 어머니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각 기질마다 특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질 차원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극 추구 기질 차원에서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자극 추구 기질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고, 유아와 어머니의 자극 추구 기질이 모두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유아의 자극 추구 기질이 높고 어머니의 자극 추구 기질이 낮은 집단(다른 기질 집단)은 가장 낮은 온정/애정 양육 태도를 보였지만, 적대/거부 양육 및 무관심 양육에서는 같은 기질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적대/거부 및 무관심 양육은 유아와 어머니의 자극 추구 기질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경우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만족도가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오현숙, 2006)와 유사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자극 추구 기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동일성이나 기질 차이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다만 유아와 어머니 모두 자극 추구 기질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을 보인 점은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자극 추구 기질이 낮을 경우 성미가 느리고 호기심이 부족하고 절제되어 있어 외적으로는 다소 경직되고 틀에 박힌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새로운 자극에 쉽게 흥분하지 않고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자극 추구 기질이 낮은 경우 어머니 편에서는 좌절을 잘 견디고 분명한 규칙을 선호함으로써 양육 과정에서 유아

www.kci.go.kr

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유아 역시 이런 특성을 보이는 어머니에 대해 안정된 대상으로서 지각함으로써,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 안정성이 어머니의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위험 회피 기질 차원에서도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동일성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와 어머니 모두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은 같은 기질 집단의 어머니는 적대/거부적 양육은 가장 높은 반면, 온정/애정적 양육이 가장 낮았다. 또한 유아의 위험 회피 기질이 낮고 어머니의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은 다른 기질 집단도 유아와 어머니의 위험 회피 기질이 모두 높은 같은 기질 집단과 사후 검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처럼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을 동시에 탐색하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가 부모 중심의 양육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모인선 등, 2005). 또한 성인 임상 및 비임상군 연구에서는 높은 위험회피 기질과 낮은 자율성이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임진현, 2005; Grucza, Przybeck, Spitznagel, & Cloninger, 2003; Smith, Duffy, Stewart, Muir, & Blackwood, 2005). 따라서 위험 회피 기질이 강한 유아는 어머니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과 돌봄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어머니를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 같다. 또한 선행 연구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해석을 일반화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위험 회피 기질이 강한 어머니 역시 자녀의 사소한 반응조차도 예민하게 지각함으로써 더욱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자녀 행동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가정도 가능할 듯하다. 특히 어머니가 자율성이 낮을 경우 이런 경향을 완충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유아와 어머니 모두 위험 회피 기질이 낮은 같은 기질 집단의 어머니는 가장 높은 온정/애정적 양육을 보였음은 물론 가장 낮은 적대/거부적 양육 및 무관심 양육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위험 회피 기질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 회피 기질이 낮은 경우 걱정이 없고 이완되어 있으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낙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유아도 어머니도 위험 회피 기질이 낮은 경우 상호간에 낙관적인 태도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민감성 차원 역시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동일성 자체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지는 않았다. 특히 유아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경우 온정/애정적 양육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반면, 적대/거부적 양육과 무관심 양육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사교적이고 사회적 접촉을 좋아하며 개방적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어머니와의 신체적, 정서적 접촉을 많이 시도하면서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어려움에 더 민감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호간의 긍정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인내력 차원에서도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동일성이 양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www.kci.go.kr

타나지는 않았다.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인내력이 높은 집단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인내력이 낮은 집단이나 유아는 인내력이 높고 어머니는 인내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온정/애정적인 양육 점수가 높은 반면, 적대/거부적 양육과 무관심 양육 점수는 낮았다. 인내력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이나 피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머니와 유아 모두에게 양육상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유아의 높은 인내력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에 일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동일성 자체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최영희, 1993; 허순영 등, 2005)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측정 방법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기질 조화성과 기질 부조화는 자녀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를 3점 혹은 4점 척도로 평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어머니의 기질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동일 기질과 다른 기질 집단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의 기질 조화성 측정은 기질 조화성이라기보다는 양육자의 기질 만족도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허순영 등(2005)의 연구와 달리 남녀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지 않고, 최영희(1993)의 연구에서처럼 전체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자료가 허순영 등의 선행 연구에서처럼 남녀를 나누어 분석하거나 모형 검증을 하기에는 사례수가 적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기질에 따른 동일성과 차이 집단 분류에 따라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양육 태도별로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문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애정적인 양육 태도에 대해 유아의 기질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의 기질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성격 특성 중에서는 자율성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높을수록 어머니도 온정/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사교적이고 개방적이며 타인의 감정에 더 반응적일수록, 좌절인내력이 높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어머니의 온정/애정 양육에 어머니의 자율성이 높은 설명력을 보인 점은, 어머니가 높은 행동 통제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 있다면 유아나 어머니 자신의 기질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유아의 기질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머니가 성격적으로 성숙하다면 이는 양육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과는 부모 교육 구성 내용에도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고려된다. 부모 교육에서 모-자 관계의 긍정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훈육이나 다른 교육 내용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반응을 완충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조절 훈련이 포함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질 중 자극 추구 기질, 어머니의 기질 중 자극 추구 기질과 위험 회피 기질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녀의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적대/거부적 양육

www.kci.go.kr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높은 자극 추구 기질은 위험 회피 기질과 함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Rettew, Althoff, Dumenci, & Huudziak, 2008).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은 유아는 낯선 장소나 상황에서 쉽게 흥분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자극 추구 기질이 낮은 유아의 경우 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더 편안해하며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쉽게 흥분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에게는 더 쉬운 기질의 아이로 지각될 수 있다. 이는 활동성이 높은 아동이 지나친 에너지로 인해 양육자를 지치게 만든다는 Buss와 Plomin(1986)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어머니가 자극 추구 기질과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감정 변화가 많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자녀의 기질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제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견딜 수 있는 좌절 인내력이 낮아 더욱 적대적인 감정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 또한 어머니가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위험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미리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 걱정이나 비관적 사고에 빠져 자녀의 중립적인 반응이나 행동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적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어머니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성격 특성보다 어머니의 기질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다른 양육 태도에 비해서 무관심한 양육 태도는 자녀보다는 어머니 변인이 갖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어머니가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새로운 주변 자극들에 쉽게 매료되고 내적인 흥미와 관심도가 양육 이외의 외부 자극으로 전환되거나 확대되어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양육에 몰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인내력 기질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어머니의 낮은 좌절 인내력과 쉬운 일도 시작이 어렵고 자신의 해야 할 일조차 관여하려하지 않고 비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인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이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무관심한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경우 다른 부적 정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교육 외에도 어머니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이나 개입을 병행함으로써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동일성 자체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각 기질의 높고 낮은 특성에 따라 유아와 어머니 상호간의 긍정적, 부정적 유대가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문제 1에서 유아와 어머니 모두 자극 추구 기질과 위험 회피 기질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에서

www.kci.go.kr

긍정적 양육에 대한 유아와 어머니의 자극 추구 및 위험 회피 기질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바, 이 결과를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유아와 어머니의 자극 추구 기질이 강한 경우 어머니가 적대/거부적 양육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어머니의 높은 위험 회피 기질 역시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질 중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끄는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머니의 자율성이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성격 차원이 지니는 설명력이 자녀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기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자율성이 긍정적 양육에는 관여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바, 자율성 외에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머니 요인들을 부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 성숙도 자체가 연구의 초점이 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주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을 완충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변인이 더 탐색된다면, 부모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 만족도나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등 다른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모형을 검증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미희, 탁진국, 한태영, 한영석, 유태용 (2007). 중·장년층 재취업 결정 요인과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37-557.

모인선, 김희연 (2005). 유아의 성격, 부모 만족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아동교육, 14(1), 131-144.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서울: (주) 마음사랑.

박진아, 정문자 (2007). 불안 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 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 행동의 중재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9(2), 273-295.

오현숙 (2006).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11-226.

오현숙, 민병배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유아용. 서울: (주) 마음사랑.

임진현 (2005). 우울-품행 장애 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 개념 및 정서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 조절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전수연 (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 발달의 차이: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적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 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천희영 (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www.kci.go.kr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최영희 (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I): 조화로운 합치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17-226.

한세영, 박성연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7(1), 245-258.

허순영, 이경옥, 김영희 (200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방식 및 아동의 문제 행동. 놀이치료연구, 9(2), 1-17.

Baker, B. L., & Heller, T. L. (1996). Preschool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Experience of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513-532.

Bates, J. E. (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4), 299-319.

Bates, J. E. (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Y: Wiley.

Belsky, J., & Gamble, W.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ompetence: Towards a contextual theory. In M. Lewis(Ed.). *Beyond the dyad.* NY: Plenum.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Caron, J., & Miller, P. (1981). *Effects of infant characteristics on caregiver responsiveness among the Gusii,*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oston.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Eisenberg, N., Champion, C., & Ma, Y.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An emerging construct.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36-259.

Goth, K., Cloninger, C.R., Schmeck, K. (2003a). *Das Junior Temperament and Charakter Inventar fur das Kindergartenalter - JTCI/3-6.* Klinik fur Psychiatrie and Psychotherapie des Kindes - und Jugendalters der der J. W. Goethe - Universitat Frankfurt.

Goth, K., Cloninger, C.R., Schmeck, K. (2003b). *Das Temperament and Charakter Inventar Kurzversion fur Erwachsene - TCI R Kurz.* Klinik fur Psychiatrie and Psychotherapie des Kindes - und Jugendalters der der J. W. Goethe - Universitat Frankfurt.

Grucza, R. A., Przybeck, T. R., Spitznagel, E. L., Cloninger, C. R. (2003).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123-130.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www.kci.go.kr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e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Levitt, M. J., Weber, R. A., & Clark, M.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Rettew, D. C., Althoff, R. R., Dumenci, L., & Huudziak, J. J. (2008). Latent profile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pathology and wellnes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atry, 47*, 273-281.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mith, D. J., Duffy, L., Stewart, M. E., Muir, W. J., & Blackwood, D. H. (2005). High harmavoidance and low self-directedness in euthymic young adults with recurrent, early-onse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7*, 83-89.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dolescents from authoritate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3)*, 754-770.

Thomas, A., & Chess, S. (1957). An approach to the study of source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Experiential Psychopathology, 18,* 347-357.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1 차원고접수 : 2010. 1. 25.
심사통과접수 : 2010. 3. 05.
최종원고접수 : 2010. 3. 24.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0, Vol. 15, No. 1, 25-44

Effects of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parenting attitudes

Hyeon Jin Park[1)] Joo Young Lee[2)] Kyung Joo Moon[3)] Jung Hye Kwon[1)]

[1)]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Yon sei University
[3)]Maumsarang Inc., Korea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parenting attitude. A total of 282 children from age 3 to 6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ir main care-takers completed JTCI 3-6(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3-6), TCI-RS(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Short), and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mother's warmth/affection parenting, child's reward dependence(RD) and persistence(P)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mother's self-directedness(SD) also significant in its effect. For both child and mother, higher RD and P resulted in more warmth/affection parenting attitude. Second, for mother's aggression/hostility parenting, child's novelty seeking(NS) and mother's novelty seeking(NS) and harm avoidance(HA) had a significant effect. However, mother's character had no significant effect. Especially, mother's high novelty seeking and high harm avoidance, regardless of child's temperamental strength, resulted in more aggression/hostility parenting attitude. Third, for mother's indifference parenting, only mother's tempera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Lower persistence(P) of both child and mother resulted in mother's indifference parenting attitude.

Key words : child's temperament, caregiver's temperament, caregiver's character, parental attitude

www.kci.go.kr